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3년간 약 500억 원 투자

-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 지원 기관 5개소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월 1일(화)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추진 경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 필수의료 혁신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주요 임무)

** 총인건비·정원 통제 등 의료정합성 낮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투자('25년 812억 원 신규)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본격 착수한다.

[사업 상세 내용]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사업(R&D)’사업은 3년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①인프라(코어 퍼실리티)-②연구-③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3년간 약 500억 원, 기관별 100억 원 내외)한다.

①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자체 특화 연구 수행을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산·학·연·병 등과 협력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블록펀딩(묶음예산지원)**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한다.

③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하여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 활용, 자료수집·분석 담당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연구 분야와 방식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하여 국립대병원이 자유롭게 기획·추진할 수 있다.

[선정 결과]

모든 지역 국립대병원(9개)이 사업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 순)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립대병원의 연구 수행계획은 아래와 같다.

병원명	코어 퍼실리티 분야	중점 연구과제
강원대 병원	▶ 멀티오믹스 ▶ 혁신바이오마커 및 이미징	▶ 오가노이드/생체조직칩 플랫폼 구축·실증 ▶ 노인성 난치질환/치매 진단·디지털 병리 연구
경북대 병원	▶ 다중오믹스	▶ 난치성암 조기진단·예후예측 치료타겟 발굴 ▶ 패혈성 급성 신손상 관련 통합오믹스 기반 중개연구
전남대 병원	▶ 유전체 빅데이터 ▶ 세포유전자치료	▶ 난치성 신경질환 바이오 신약소재 개발 ▶ 난치성 폐암 전임상 모델 개발
제주대 병원	▶ 단백질체 분석 ▶ 다중오믹스 임상데이터	▶ 아열대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 ▶ 지역기반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구축맞춤형 치료기술
충남대 병원	▶ Optical/3D·4D 이미징 ▶ 유세포 분석	▶ 고정밀 이미지 이용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 활성 조절 가능 CAR-T cell 개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교육·연구·임상**을 모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임상 인프라 투자(‘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작으로 R&D 관련 투자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개요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533)



□ 사업개요

- (목적)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수 인재 확보 및 연구-임상역량 동반 성장 도모
-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
- ('25. 예산) 132.5억원 (국비 110억원)

□ 주요내용

- (세부 내용) 인프라, 연구, 지원센터 3개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
 - ① (인프라) 연구역량 제고 기반 구축
 - 필수·기본 연구 장비(핵심 인프라)와 기관별 특화 인프라 지원
 - * (핵심 인프라) 공초점현미경, 고성능시컨서 등 범용성 있는 장비
(특화 인프라) 병원별 특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 ② (연구)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 지원
 - 지역 국립대병원이 수립한 연구 계획에 맞추어 블록펀딩 형식으로 지원 → 병원이 직접 R&D 과제 기획·선정
 - ③ (지원체계) 지역의학연구협력지원센터
 - 연구설계, 장비 활용,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자문 등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제안 外 부수적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인력(실험 테크니션) 지원
- (추진방식) 국립대병원별 연구계획 수립·제출 ⇨ 전문가 자문, 심의 등을 통해 계획 적절성 검토 후 차등 지원

□ 기대효과

-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연구를 통해 연구 다양성 증대 → 전국 병원 간 연구지식을 공유·융합하여 혁신적 성과 창출 가능
- 지역 내 대학, 병원, 기업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초에서 임상·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성과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